

학생회장단 공약서

태재대학교 4기 첫 학생회 선거

학생회장 후보 **고원재** · 부회장 후보 **박지민**

공약 정리

학생회의 방향성

학생의 주체성

학생 간 화합

학교와의 소통

학생회는 곧 학생들의 모임(會)입니다. 4기 72명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대표로서 학교와 소통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학생 주체

학생의 주체성 존중과 참여적 학생회 운영

- 4기 학생 전원 학생회 회원 등록
- 매달 전체 공론장 마련 및 학생 감사제 시행
- 학생회 건의함 운영 및 활성화

4기 전교생을 학생회의 정식 회원으로 둬으로써, 학우 여러분이 학교 운영과 의견 개진에 자연스러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학생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학우분들이 특정 학생회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을 때 주저없이 다가설 수 있는 명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열린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2 학생 간 화합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학술 및 진로 동아리 지원 및 관리
- 예체능 동아리 지원 및 관리
- 동아리 세미나 공간확보 및 활동예산
- Academic Festival(학술축제) 개최

학술·진로 동아리와 예체능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어 학생들의 관심사가 자발적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 세미나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요청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체 연합 및 생활편의 증대

-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공용공간 확보 및 관리
- 태재 커뮤니티 사이트 활성화
- 공동구매 방안 마련 및 활성화
- 공식 행사 및 공식 커뮤니티 영어 사용

공동체 프로그램(월말 생일파티, 자체 시상식 등을 고려 중)을 운영하는 한편, 공용공간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 외부장소를 임대하는 등 학우들의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키와 맛집 지도를 담은 태재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동구매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태재대학교의 국제성을 반영하여 공식 언어를 영어로 지정함으로써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연합을 도모하겠습니다.

3 학교와의 소통

- 프리파라토리움 등록금 반환 문의
- 학교 교육과정 피드백 구조 개선
- 동아리 및 학생활동 예산지원 추진
- 동아리 및 학생활동 예산지원 요건 및 기준 협의
- 정기 교원-학생 협의회 구성추진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하여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피드백 구조를 개선하여 수업에 대한 원활한 학생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지원금, 인원수에 따른 학생회 지원비 책정 등 예산지원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교원-학생 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 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중요 결정사항은 사전에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었을 경우, 본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회 조직도

학생회장
고원재

부회장
박지민

임원진 구성 및 역할

1 사무담당

- 학생 감사제 운영 지원
- 회의록 및 규정 문서화

2 회계담당

- 예산안 작성
- 예산 집행·회계 처리

3 참여소통담당

- 매달 공론장 기획 및 진행
- 학생회 건의함 운영 (의견 수합 및 답변)
- 학생 소통 채널 관리 (태재 커뮤니티 사이트 관리 등)

4 학술지원담당

- 동아리 관리 및 활동 지원
- 학술 페스티벌(Academic Festival) 기획 및 운영

5 교무행정담당

- 교육과정 피드백 방식 개선
- 학교 행정팀 소통 및 예산 지원 체계화
- 정기 교원-학생 협의회 요청, 준비 및 의제 조율

6 생활복지담당

- 공용공간 관리
- 공동구매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7 사업기획총괄 담당

- 공동체 프로그램 및 주요학교 행사 실질기획
- 행사 현장 운영 총괄 및 지원

8 대외협력·홍보 담당

- 프로그램 및 행사 홍보물 제작, 미디어 기록
- 대외 협력 사업 지원 및 연계 기획

*본 학생회 조직도는 초안이며, 추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학생회 임원은 회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면담을 통해 임명할 계획입니다.

학생회장단 소견서

부회장 후보

박지민

안녕하세요. 이번 태재대 4기의 첫 학생회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박지민입니다.

동기 여러분께 선선한 가을을 맞아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입학하고 한 달 채 되지 않은 시간이나, 공용공간과 복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눈을 마주치다보니 우리가 앞으로 4년이라는 여정을 함께할 동료이자 조력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와닿습니다.

태재대학교에는 4기 학생들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다른 관심사와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현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협력할 때 무궁한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태재대의 미래가 되고, 4기 학생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영향력을 가진 주체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전교생 50명과 동고동락하며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향도, 살아온 환경도, 삶의 방식도 모두 제각각인 사람들이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흡사 필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공동의 선을 위해 이해와 존중, 배려를 택할 때 비로소 화합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져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회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연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몸담은 학교는 또한 개교한지 5년 채 되지않은 신생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전교 대의원장, 학생회 부원, 영상팀 프로젝트 총괄, 앱개발 해커톤 참가 및 대상수상, 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경영부 차장 등 크고 작은 조직에서 리더와 팀원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각기 다른 필요와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조직의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으며, 다양한 소통 현장에서 회의 진행과 조직 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대의원회 활동을 통해 교내 규정 제·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 전교생 규정 토론회를 주도했습니다. 설문과 토론을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문서를 꼼꼼히 작성해온 경험은 앞으로 태재대학교 측과 소통하며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재대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로서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연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재대학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학교인 만큼, 학교와 세밀히 소통하며 좋은 학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학교의 입장에도 귀 기울이며, 상호적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태재대학교의 첫 학생회가 4기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제 변화로 이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고원재 학생회장과 온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원재

안녕하세요. 이번 태재대학교 4기 첫 학생회 선거에 학생회장 후보로 박지민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게 된 고원재입니다.

수업에서, 혹은 기숙사를 오가며 이미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의 저는 장난도 많이 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출마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재대학교는 이제 막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이나 각종 학교 행정, 학생 지원과 같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합리적인 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권리와 요구를 전달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한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볼 때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법이나 더 효과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회 역시 회의를 위한 회의, 행사를 위한 행사,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은 빠르게 실행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은 줄이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실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학우이자 동기로서의 고원재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회장으로서의 고원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금의 친근함 자체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 기숙사에서 마주쳤을 때,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메시지 한 통으로라도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학생회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대학교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 능력,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동아리와 커뮤니티를 통해 연결되는 환경,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학생회가 지원하고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프리파라토리움 기간에는 동기들과 함께 태재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몇 사람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와 학생들이 함께 이어가며 태재의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재대학교는 아직 완성된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지민 부회장 후보와 제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주체성, 화합, 그리고 소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접근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박지민 후보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협력과 화합의 가치를 먼저 바라본다면, 저는 각자의 권리와 목표가 존중될 때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과학교등학교라는 작고 치열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기회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권리와 얻을 수 있는 기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함께 움직여야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같은 목표와 같은 방식의 참여를 요구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했을 때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박지민 후보와 저는 출발점과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하나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하며, 결정한 일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회장 후보 고원재, 부회장 후보 박지민입니다.

태재대학교 4기 첫 학생회 선거 · 학생회장 후보 고원재 · 부회장 후보 박지민